

2006. 10.

수 신 : 제천시의회회의장

제목 :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 촉구 건의문 발의

위의 건의문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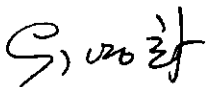

불 임 : 1. 의원서명서 1부.

2.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 촉구 건의문 1부. 끝.

발의자 : 김명섭 의원 (인)

외 2인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 촉구 건의문 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김 명섭		
유영화		
조영희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 촉구 건의문

의안번호	///0
------	------

발의연월일 : 2006. 11. .

발 의 자 : 김영섭 외 2인

1. 제안이유

- 제천휴게소의 조기착공은 제천지역의 중요한 현안임.
- 이에 따라 14만 제천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천휴게소를 당초 규모대로 조기에 착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금년도 11월까지 착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 촉구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사장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인 대과제 실행과 국가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가 발전축의 상반된 위치에 있어 지금껏 소외되어온 우리 제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중앙고속도로가 1996년 개통이 되면서 원주에는 치악휴게소 그리고 단양에는 단양휴게소가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천지역에는 개통당시 부지정지 작업 후, 지금까지 건축허가 및 소요사업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노선교통량 및 인근휴게소 매출량 등을 이유로 휴게소 규모 축소 및 건립시기 재조정중에 있다는 소극적인 도로공사 측의 답변만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소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낙후로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제천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의 조기착공은 제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도로공사에서는 중앙고속도로 완전개통 전까지 제천휴게소 건립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원주 치악휴게소 건립 시 발생하는 오수를 제천 지역 봉양천으로 방류 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천휴게소 조기 건립 또한 주민과의 약속 내용이었습시다.

이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천시민과의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교통량 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회는 14만 제천시민의 뜻에 따라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천휴게소를 당초 규모대로 조기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금년도 11월까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3
제천시의회 의원일동